NV Sieve on Grover

https://youtu.be/t6ChS6ljzDY





저번 발표 이후 진행 사항

저번 발표에서 Overflow를 대충 해결한 점을 개선

- 당시 시간상 간단하게 큐비트르 2배로 하여 overflow를 해결함으로써 기존의 구현물을 일부 재활용 하였음
- 그러나 이는 자원 낭비이며, 생각해보니 1 큐비트만 더 있어도 범위 커버 가능
- 변경 완료하였으며, 구현 상 다른 점은 딱히 없고 약간의 수정 및 스케일링 거침
- 이를 통해 자원과 큐비트를 많이 아낌
- 이외에도 최적화 가능 지점을 찾아 봐야 할 것 (우선 나중에..)

• 양자 비용 증가량의 경향을 보기 위한 추가 구현

• R2D2 (Rank=2, Dimension=2)~R4D4까지 Rank 및 Dimension을 증가시키며 오라클 비용 측정

■ (완료)R2D3.ipynb ■ (완료)R2D4.ipynb ■ (완료)R3D2.ipynb ■ (완료)R3D3.ipynb ■ (완료)R3D4.ipynb

■ (완료)R4D2.ipynb

■ (완료)R4D3.ipynb

ab files / KISTI / OF수정 /

(완료)R2D2.ipynb

Last Modified

5 days ago

an hour ago

5 days ago

5 days ago

5 days ago

• Grover는 일부 실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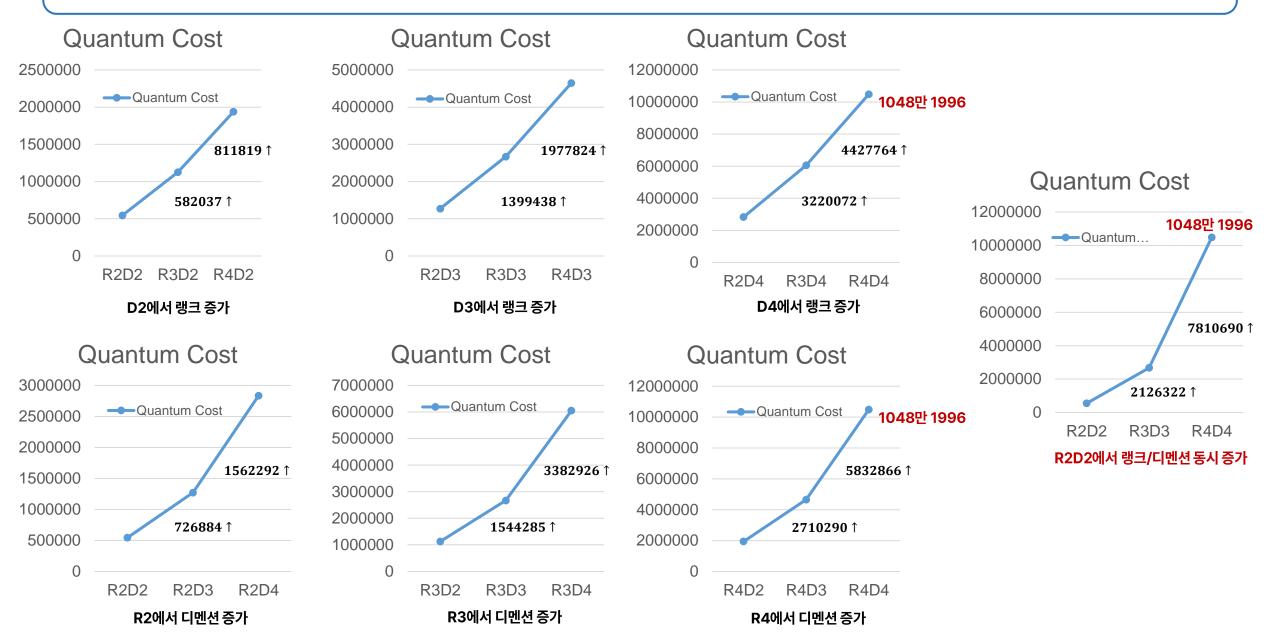
- 현재 최대 범위에서의 공격 비용이 궁금해서 R4D4는 Grover를 돌려 두고 학술대회에 다녀왔더니 커널이 끊김
- 실행 시간이 비교적 짧은 R2D2, R3D3 우선 실행 (iteration=1)
 - R2D2:1.3초
 - R3D3:539.9초
 - R4D4 : 이대로라면 최소 3일 이상..? (그래서 런타임이 끊긴 것으로 보임)

Overflow 해결 방식 수정

- Overflow 해결 방식을 수정함으로써 양자 비용이 전반적으로 감소
 - 현재 구현의 R4D4는 큐비트 수를 포함한 모든 양자 비용이 지난 구현의 R2D4 (ExDim)보다 적음
 - 오라클을 더욱 최적화 한다면 양자 비용을 더 많이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

저번 R2D2											이번 R2D2										
iter=1, default	#CNOT	#1	qCliff	#T		T-depth		Full-depth	#Qubit		iter=1, R2D2	#CNOT		#1qCliff	#T		T-depth		Full-depth	#Qubit	
Oracle		477	14	0	194		582	1580		112	Oracle		291		69	124		396	1126		74
저번 R3D2											이번 R3D2										
iter=1, rank	#CNOT	#1	qCliff	#T		T-depth		Full-depth	#Qubit		iter=1, R3D2	#CNOT		#1qCliff	#T		T-depth		Full-depth	#Qubit	
Oracle		705	20	3	284		848	2297	'	160	Oracle		420		90	181		576	1631		105
저번 R2D4											이번 R2D4										
iter=1, dim	#CNOT	#1	qCliff	#T		T-depth		Full-depth	#Qubit		iter=1, R2D4	#CNOT		#1qCliff	#T		T-depth		Full-depth	#Qubit	
Oracle		1613	56	0	722		2102	5543		344	Oracle		685	2	24	296		878	2352		179

추가 구현들의 Oracle 비용 측정 (그래프)



추가 구현들의 Oracle 비용 측정 (해석)

- 동일하게 1씩 스케일 업 할 때, Dimension 증가가 Rank 증가보다 Quantum Cost 증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침
 - 동일 Dimension에서 Rank를 늘릴 때, 증가량이 비슷 (1.3~1.4배)
 - → 그래프 상에서 약간 linear한 모양새에 더 가까운 듯..
 - → 현재 디멘션에 따라 랭크업에 대한 증가량이 커지긴 함
 - 동일 Rank에서 Dimension을 늘릴 때, 증가량이 크게 증가 (2배 이상)
 - → exponential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..
- 당연하지만, Rank / Dimension이 커질수록 Quantum Cost의 증가량도 커짐
- 해당 그래프는 Oracle에 대한 비용이며, 실제 Grover 공격 비용은 이보다 2배 이상 커질 것 (Grover 적용 + iteration)
 - Grover 적용으로 인해 약 2배
 - 적절한 iteration이 1보다 클 경우, 공격 비용 증가 (저번 실험에 의하면 iteration이 많아질수록 공격 비용의 증가량이 증가함)
 - 실제로 R2D2, R3D3를 실행해 본 결과 오라클의 약 2배의 자원 필요 (iteration=1인 경우)

_	iter=1, R2D2	#CNOT	#1qCliff	#T	T-depth	Full-depth	#Qubit
약 2배 -	Oracle	291		124	396	1126	74
' - " [Grover	582	142	248	792	2259	75
_	iter=1, R3D3	#CNOT	#1qCliff	#T	T-depth	Full-depth	#Qubit
약 2배 -	Oracle	675	207	284	848	2291	160

계획

- 더 큰 Rank 및 Dimension 구현 및 비용 측정
 - 이에 대한 결과 그래프 작성
 - 검색 비용에 관한 그래프 작성
- Noise
 - 노이즈가 첨가된 fake hardware가 있으나, 아마 100 큐비트 전후로 사용 가능
 → 이전에 사용해봤던 경험에 의하면 엄청 느림
 - 이 방법 말고는 게이트에 노이즈를 첨가할 수 있음
 → 해당 부분은 논문이나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오류율에 따른 Grover를 위한 비용을 추정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임..
- QPE의 정확도가 떨어질 경우, 적절한 iteration 찾기 어려워짐 → 옳은 솔루션 도출 불가 → 위상 추정 큐비트의 수를 늘리기 / 반복 위상 추정이라는 Iterative QPE를 사용한다고 하며, 필요 시 적용 예정

감사합니다.